‘천계天界의 바람이 되어’ 기억에 머무르다

세월호 10주기 추모전, 4월25일까지 은암미술관

회화·설치·영상·사진 등 34점…4월5일 개막식 퍼포먼스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유족들의 그리운 소식 전해지길”

김봉규 작 ‘2014년 4월 16일 오후, 동거차도 앞바다 사고 현장’

파릇한 새싹이 돋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유독 아픈 이들이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가슴에 자식을 묻은 채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 생떼 같은 자식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참척(慘慽)의 아픔은 그것을 겪어보지 않는 이들이 상상하기는 힘들다.

세월호 유가족은 오늘도 참척의 고통을 견뎌내며 온전히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로 만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의미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에서 4월 25일까지 펼쳐지는 추모전 ‘천계天界의 바람이 되어’라가 그것.(오픈식은 오는 4월 5일 오후 3시)

‘하늘의 바람’이라는 뜻을 지닌 ‘천계天界의 바람’은 사고사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상정한다. 아울러 그곳으로까지 이 땅 유족들의 그리운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

김봉규, 김병택, 박정용, 박철우, 정영창 작가는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를 풀어내며 애도한다. 회화 10점을 비롯해 설치 1점, 영상 1점, 사진 34점을 만날 수 있다.

박형선 학예연구원은 “작가들의 고민과 사유가 담긴 작품들은 당시의 고통은 물론 여전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태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강렬하다. 붉은 하늘과 붉은 바다, 가운데 기다랗게 이어진 섬들의 풍경은 보는 이에게 먹먹함과 안타까움을 준다. 붉은 하늘에 떠 있는 흰색의 무리는 죽은 이들의 영혼 같아 보인다. 또한 박힌듯 밤하늘에 떠있는 흰 점들은 하늘나라 어디에선가 지구를 바라보는 순수한 영혼들 같은 느낌을 환기한다.

김봉규의 ‘2014년 4월 16일 오후, 동거차도 앞바다 사고 현장’은 잊을 수 없는 당시를 기록하고 있다. 생생한 사진은 사건 기록을 넘어 어떻게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지,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등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한다. 아울러 사진에선 참담한 사건을 바라보는 고통스럽고 슬픈 감정이 배어나온다. 한겨레신문 사진부 선임기자인 김 기자는 세월호 침몰 당시부터 선체 인양까지 3년간 팽목항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박철우 작 ‘2014-그날’

박철우 작가의 ‘2014-그날’이 주는 강렬함도 무엇에 비할 바 아니다. 팽목항 검은 바다에 떠 있는 희생자들의 하얀 영혼은 아픔과 슬픔을 넘은 어떤 분노를 갖게 한다. 실체는 없고 형체만 하얗게 남은 영혼들은 지금도 사람들을 향해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듯하다. 저편의 칼날처럼 반듯한 직선의 바다 위로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의 모습이 비극을 극대화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못다 핀 꿈이 꽃처럼 승화되기를 기원하는 작품도 있다. 박정용 작가의 신작 ‘승화된 꽃’은 깊은 잠 속에 빠진 학생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잠에서 깨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는 날, 이 세상 모든 참사의 슬픔은 눈독듯 사라질 것도 같다.

정영창 작가는 독일에서 세월호 소식을 접한 뒤, 팽목항과 목포신항을 찾아 세월호 흔적을 수집하며 당시 참상을 전하는 데 주력했다. ‘촛불’ 등 사진과 회화 작업을 통해 슬픔에 공감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그 연장선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채종기 관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만 10년이 다 됐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죽어간 넋들에 대한 위로,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막식 당일 4월 5일(오후 3시)에는 김호준, 김은숙 배우의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흔적을 통한 존재의 사유

한희선 개인전, 31일까지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특정한 흔적은 실존했던 존재를 증명한다. 존재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존재와 흔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희선 작가는 존재의 흔적을 매개로 둘 사이를 모색하는 작업을 해왔다. 물론 이때의 존재는 생명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테면 철에 슨 녹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희선 작가가 존재와 흔적을 모티브로 전시를 열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 주제는 ‘불구부정-먼지가 되어가는 중이었다’. 작가는 흔적을 통해 우리의 감각과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머리카락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설치 작품, 영상, 아카이브 등 모두 25점을 볼 수 있다.

한 작가는 “얼핏 머리카락은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관념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라며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는 흔적을 매개로 서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 작품은 지난 2021년부터 수집한 작가의 머리카락을 주재료로 한다. 더러움과 깨끗함의 경계를 허물고 사유의 전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불구부정’(不垢不淨)

작품 ‘불구부정’은 추상적이면서 다소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환기한다. 실타래를 풀어헤쳐 가느다란 실을 뽑아 가지런히 정리한 것 같기도 하고, 생명체 세포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생생한 모습을 클로즈업한 것 같기도 하다.

양림동을 모티브로 한 작품도 있다. ‘윤회003’은 과거 선교사 언더우드 사택 등을 중심으로 탐색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특히 선교사 묘역에서 수집한 자연물의 흔적, 2개월간 레지던시 생활을 하며 접했던 생활의 흔적은 고스란히 작품이 되었다.

한편 한 작가는 강화도에서 내려와 약 2개월간 호랑가시나무창작소에서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했다. 이번 전시는 방문자 시선으로 광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산물인 셈이다. 제4회 대한민국 환경생태 미술대전 최우수상, 제7회 한국창조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너와 나의 관계 속 ‘유토피아’는 어디인가

극단 벙커111 개관 공연 ‘햄릿 유토피아’ 4월12~14일

부왕의 부고를 접한 햄릿은 절망하며 스스로 ‘새장’ 안에 들어간다. 자신만의 닫힌 세계에서 햄릿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오히려 새장을 안락의 장소로 인식한다. 이런 햄릿을 바라보는 오필리아는 햄릿의 나약함을 조롱하며 그의 숨을 앗아간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 어느 날, 다시 부활한 햄릿이 관객들 앞을 찾아온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속 정형적인 ‘햄릿’ 이야기와 다른 시놉시스는 이색적이다.

극단 벙커111(BUNKER111·대표 표정화)이 복합문화공간 BUNKER111 개관 공연으로 ‘햄릿 유토피아’를 4월 12~14일 선보인다.(12일 오후 7시 30분, 13일 3시, 7시, 14일 3시)

‘문화와 예술을 짓는 공간’이라는 모토로 개관을 앞둔 벙커111(광주시 동구 중앙로 149-5 지하)은 문화예술 복합공간이다.

공연은 2024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너와 나의 유토피아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는 실험극이다.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타자를 소외하고 공동체 정신을 도외시하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햄릿 역에 최시영, 오필리아 역에 허난 배우가 출연할 예정이다.

‘햄릿 유토피아’ 공연 장면. 〈극단 벙커111 제공〉

‘햄릿 유토피아’는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하이너 뮐러의 ‘햄릿 기계’ 두 작품을 모티브로 표정화 연출가가 각색한 작품이다. 원작에서 햄릿이 오필리아의 아버지를 죽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미쳐버렸던 모습과는 달리, 오필리아가 햄릿의 대적자로 등장한다.

총 6장 구성이며 간결한 세트와 무대, 미술 등에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측면이 있다. 티켓링크 또는 네이버카페 극단 벙커111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색다른 클래식 경험 ‘해설이 있는 발레, 백조의 호수’

ACC재단, 난생처음 시리즈

4월13~14일 ACC 어린이극장

‘백조의 호수’ 속 하이라이트 장면들과 발레 동작 등을 해설을 통해 쉽게 이해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난생처음 시리즈 ‘해설이 있는 발레-백조의 호수’를 4월 13~14일(오전 11시,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난생처음 시리즈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의 색다른 클래식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무용, 발레 장르 등으로 구성되는 어린이극장 브랜드 공연이다.

공연은 지그프리드 왕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3인무 ‘백조 파 드 트루아’, 사악한 마법사 로트바르트의 저주를 받아 백조로 변한 오데트 공주와 지그프리드의 ‘‘4마리 백조’, ‘2마리 백조’ ‘백조 파 드 되’’를 볼 수 있다. 안무에 프티파와 이바노프.

이어 ‘스페인춤, 헝가리춤, 나폴리춤’은 작중 왕자의 신붓감을 고르기 위한 스페인, 헝가리, 나폴리 공주의 춤이다. 프리마 발레리나와 남성 제1무용수가 펼치는 2인무 ‘그랑 파 드 되’도 볼 수 있다. 로트바르트의 딸 오딜이 오데트의 모습으로 변신한 채 나타나고 지그프리드는 이에 속아 오딜을 아내로 삼겠다고 맹세하며 추는 ‘흑조 그랑 파 드 되’가 펼쳐질 예정이다.

‘와이즈발레단’이 발레 동작을 선보이는 모습. 〈ACC재단 제공〉

홍성욱이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윤해지, 김민영, 변은지, 강희주, 현지연, 남스라이 멘드바야르 등이 출연한다. 발레컬(발레+뮤지컬), 댄스컬은 물론 동화발레, 클래식 발레 레퍼토리를 선보여 온 와이즈발레단도 관객들을 만난다.

ACC재단 오수환 어린이공연 담당자는 “‘난생처음 시리즈’는 지난해부터 ACC재단이 7세 미만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한 자체 브랜드 공연이다”며 “오는 11월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 무용극 ‘강강숲에 떨어진 달님’ 등도 펼쳐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석 1만5000원. /최류빈 기자 rubi@

함께 읽으며 성장 ‘동료 작가 소설집 읽기 모임’

4월25일 김지원 ‘북쪽 마녀의…’

5월30일 김신운 ‘구름 관찰자’

소설은 쓰는 것만큼이나 읽는 것도 중요하다. 문학작품 읽기와 쓰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이는 ‘읽는 만큼 쓰게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동료 작가들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창작의 열정을 북돋우고 서로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이미란 소설가(전 전남대 국문과 교수)가 이끌고 있는 ‘동료 작가 소설집 읽기 모임’(읽기 모임)이 있다. 소설집 또는 장편을 펴낸 동료들의 작품을 함께 읽고 생각을 교류하는 시간이다.

읽기 모임은 오는 4월 25일 김지원 작가의 ‘북쪽 마녀의 비밀 정원’을, 5월 30일에는 김신운 작가의 ‘구름 관찰자’를 읽을 예정이다. 장소는 동구 비트원 디제이 아카데미 학원.

김지원 작가의 ‘북쪽 마녀의 비밀 정원’은 주인공이 옛 목조주택의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진행된다. 목조주택은 일제강점기 총독부 관리가 애첩을 위해 지었던 곳으로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기억을 마주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김신운 작가의 ‘구름 관찰자’는 작가의 7번째 장편소설로 소년이 작가가 되기까지의 15년 과정을 담았다. 주인공 명준은 초등, 중고등, 군복무, 대학 재학 중에도 문학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인물이다. 흥미로운 점은 작품에 작가의 일부 모습이 투영돼 있는데, 소설이 일종의 성장소설로 읽히는 이유다.

/박성천 기자 skypark@